

‘임금차별타파의 날’ 일하는 여성 경청 간담회 개최

- ‘임금차별타파의 날(5.25)’ 맞아 소상공인, 프리랜서, 마트노동자, 재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노동자와 만남, 현장의 목소리 경청
-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서영교 전 노동존중실천단장, 이수진 여성본부장, ‘김경숙길’ 함께 걸으며 과거와 현재의 여성노동 현실 이야기와 정책 제안

- 중앙선대위 여성본부는 5월 25일(일) 오전 9시 30분 ‘임금차별타파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분야의 여성노동자들과 만나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 ※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성별과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 공론화 및 개선을 촉구하고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 여성본부는 성별임금격차와 여성들의 불안정 고용, 경력 단절 등 열악한 우리 여성들의 노동 현실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 간담회에는 여성 소상공인·자영업자, 프리랜서 방송작가, 대형마트 계산원, 경력 40여년의 재봉사 등 다양한 직종과 세대의 여성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성1인 사업장의 안전문제, 프리랜서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 중고령 여성들의 열악하고 차별적인 직장 문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봉인들의 현실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 이 날 함께 자리한 강금실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과 서영교 전 노동존중실천단장, 이수진 여성본부 본부장은 여성노동자들 각각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학 시절 YH사건이 일어났다. 개인적으로 김경숙 열사를 기리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여성노동자 한 분 한 분이 공동체의 큰 진전을 위한 대의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여성 노동의 여러가지 열악함을 개선하고, 활동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단장은 “이 곳이 여성의 임금차별, 여성노동자의 노동자다운 삶을 위해 뛰신 김경

숙 열사가 있던 길”이라며 “더 나은 조건의 노동 환경을 만들고 모두 함께 나아지는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수진 본부장은 “성별임금격차 뿐만 아니라 육아와 돌봄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사회가 아닌,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에게 떠맡겨지고 있다”며, 여성노동의 문제는 특정 개인, 특정 직장의 문제를 넘는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짚고,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나원씨는 여성 1인 사업장이라 “안전이 제일 큰 걱정”이라며 개인적으로 안전시스템을 마련했다. “만약 고성이 나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프리랜서 방송작가인 이가람씨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강조했다.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보도국 작가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22년차 대형마트 계산원 조이용씨는 여성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심각하다”며 휴게시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노동강도가 다르지 않음에도 여성들이 진급에서 누락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 40여년간 재봉사로 일해 온 박인자씨는 거의 30년 전과 재봉일의 공임이 변화가 없다며, “경력 40년이 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무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간담회 이후 여성본부와 여성노동자들은 ‘김경숙길’로 이동해 김경숙 열사의 삶과 죽음을 되새기며, 향후 성평등 노동 세상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성·노동 분야의 ▲임금차별타파를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반영’ ▲취준생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 ▲여성1인 사업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청 연계 안심벨 보급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4.5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 예방을 위한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미조직 취약계층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 강화 등의 여성·노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 5월 2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본부장 이수진 · 백혜련)

[현장사진]



